

**국내외 주요 뉴스 및 코멘트****SIN: 신조선가지수 134p, 중고선가지수 125p**

Clarksons에 따르면, 신조선가지수는 134p, 중고선가지수는 125p를 기록하며 전 주와 동일함. 지난주 현대삼호중공업이 174,000CBM급 LNG선 1척을 유럽소재의 선주로부터 수주함. 인도기한은 2023년 4분기라고 보도됨. (Clarksons)

**Clarksons, 해운업 중기 전망 낙관**

영국 파운드화 강세가 우려되지만 해운 시장의 중기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보도됨. 해운 시장의 수급 동력이 계속해서 개선될 전망이기 때문이라고 보도됨. 글로벌 경제 회복과 무역 시장의 개선, 해운업계의 친환경 전환 등이 호재라고 보도됨. 2021년 무역량은 당초 예상치와 부합하고 있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신조 탱커의 외도**

조선소로부터 인도 받은 유조선이 첫 항해 때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여러 항차에서 석유제품을 운송하고 있다고 보도됨. 그 결과 4월 LR2탱커 운임이 일일 5,100달러로 76.8% 하락했다고 보도됨. 유조선이 PC 시장의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으며 유조선 시장이 살아나야 한다고 보도됨. (선박뉴스)

**컨테이너시장 편더멘털 변화**

컨테이너 선사들이 안정적인 장기 용선 계약을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도됨. 세계 1위 컨테이너 선사인 A.P. Moller-Maersk는 2021년 장기 계약 체결 물량이 20% 늘어날 전망이라고 보도됨. 장기계약 물량의 대부분은 구주향으로 물량이며 나머지가 미주향으로 물량이라고 보도됨. (선박뉴스)

**Mozambique: Delayed vessel heads for Eni field after insurers declare Cabo Delgado a risk zone**

Eni의 Coral South 부유식 LNG 프로젝트에 투입될 해양구조물 설치선이 Maputo 항에 멈춰 있다고 보도됨. 3월 말 Mozambique Cabo Delgado Palma 마을에서 벌어진 이슬람 반군의 활동에 따른 영향이라고 보도됨. 200억달러 규모의 Mozambique 프로젝트는 가동일이 2025년 또는 2026년으로 지연됐다고 보도됨. (Upstream)

**KNOC to pursue floating wind development near Donghae-1 gas field**

한국석유공사는 국내 첫 부유식 해상풍력단지를 2026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라고 보도됨. 200메가와트 규모의 동해-1 프로젝트는 핵심 개발 연구를 그 전에 마칠 예정이라고 보도됨. 해당 프로젝트에는 두산중공업과 노르웨이의 Equinor가 참여한다고 알려짐. (Upstream)